

# 정보 제공 둘러싼 문제점 해결 시급

- 도서관 사서, 출판업자, 공급자 함께 노력해야 가능 -



고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도서관 전문가로서 지금이 전자신문 접속 서비스를 제공할 때임을 결정했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가? 어떤 표제를 준비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전자 기사에 접속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비용은 얼마나

될 것인가? 정보제공업체 서비스를 이용하든지 전자신문에 직접 접속을 시작하든지 간에 이러한 질문과 그밖에 다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오늘날의 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는 안내자 역할을 할 것이다. <편집자>

## 게이트웨이를 통한 접속

몇개의 조직이 게이트웨이 시스템을 통해 전자신문에 접속을 제공하고 있다. 예약 구독 판매 대행자, 데이터베이스 공급자, 색인/발췌 출판업자, 기초 출판업자가 이러한 정보제공업체이다. 이들은 대체로 기사 제목, 발췌문, 저자명에 있는 핵심단어나 신문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한다.

다수의 출판업자를 대표하는 이들 조직은 모든 출판업자와 학문 분야를 망라하는 결과를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검색 기능에는 오른쪽, 왼쪽, 그리고/또는 속성, 부울 연

산자(AND, OR, NOT) 사용과 같은 절단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이보다 더 고급 검색을 제공하는 것에는 자연어 검색과 개념 검색이 포함되는데 이것은 철자에 관계없이 "global"과 "worldwide" 사이에 동의성을 이루는 단어를 검색한다.

Tchaikovsky와 Chaikovski처럼 다양한 철자를 가진 이름 검색은 고급 검색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 검색 분야를 세분하고, 날짜를 제한하며, 여러 가지 매개변수로 결과를 분류하는 것도 몇몇 시스템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 선택된

기사는 사용자의 데스크탑에 표시되거나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전달된다. 그러나 이들 시스템 대부분은 기사 제목, 발췌문, 잡지 표제, 출판업자의 단어 검색에 기초한 단순한 색인 접근 방법을 취한다. 이들이 조직된 시소러스(컴퓨터에 기억된 정보의 색인), 정리된 어휘, 상세한 제목 색인을 제공하는 일은 거의 없다.

## 색인/발췌 서비스

색인, 발췌 공급자의 도서목록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에게 보다 정교한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정리된 어휘, 주제 색인, 온라인 시소러스에 기초한 정밀한 검색을 지원한다. 이들 공급자들은 때때로 정보제공업체들과 협력하여 전문 전자 기사로 링크되도록 만든다.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면 사용자는 익숙한 도서목록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기사를 찾을 수 있고, 전자 기사를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아이콘을 클릭하여 데스크탑에 표시된 기사를 볼 수 있다.

이런 배열이 가진 결점은 (1) 색인된 기사 중 전자포맷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는 것과 (2) 사용자는 신문 잡지들을 정기 구독해야 하기 때문에 제시된 전자 기사들 중 일부만 접속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 확인, 조회 건당 지불 방식

가입 확인은 이면에서 행해지는데 사용자는 선행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모든 학술지 출판업자들은 아직도 사용자나 단체에게 전자 기사에 접속하고자 하면 정기 구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도서관은 인쇄출판물을 정기구독하고 부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전자출판물에 자주 접속할 수 있다.

인쇄출판물과 전자출판물 모두를 구독한다면 약간의 요금이 더 부과될 수 있다. 어떤 전자출판물은 인쇄출판물을 정기구독하지 않아도 인쇄출판물과 같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인쇄출판물을 정기 구독하는 것보다 이윤이 적은 전자출판물만을 정기 구독할 수 있게 하는 출판사는 소수이다.

전자 형식으로만 출판되는 신문들은 스스로 값을 매기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많은 전자 출판물은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무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전자신문에

대한 현재의 논의와 별개의 문제들을 야기한다.

많은 정보제공업체들은 조회 건당 지불 방식을 도입하고 있고, 사용자들이 정기 구독하고 있지 않은 신문, 잡지에서 기사를 보고자 하면 사전에 만든 계좌나 신용 카드 번호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개별 기사 접속 판매를 하고자 하는 출판업자들은 정기 구독 방식에 기초한 수익이 결과적으로 수난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개별적 구매가 그렇지 않다면 전혀 접속하지 않았을 사용자들에게 기사를 전달하여 출판업자의 전체 수익을 늘여나게 해줄 것인지 아니면, 도서관들이 조회 건당 지불방식을 선호하여 정기 구독을 취소하기 시작할 것인지 여부는 시간만이 말해줄 것이다. 모든 전자 기사들은 미래에 개별적으로 판매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용자들이 도서관 전문가들보다 선택 결정을 하는데 더 큰 통제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출판물의 논리적 발행 단위는 발행 부수라고 확신하고 있는 출판사들과 수익의 감소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개별 기사 판매를 거부하려 들 것이다.

## 표제 선택

고객들은 어떤 표제를 원할 것인가? 어떤 출판업자가 그런 것을 발행할 것인가? 어떤 정보제공업체가 그것을 공급할 것인가? 수집물 정보와 선택에서 도서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곳은 바로 여기이다. 모든 신문, 잡지가 전자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지는 않다.

현재 모든 전자신문을 하나의 정보 소스에서 전부 이용할 수 없다. 반면에 모든 정보제공업체들은 가능한 많은 전자신문을 전달하려고 분투 노력하고 있으며, 많은 동일한 출판업자들과 계약을 맺고 있다. 여러 서비스 업체들의 정기 간행물 목록은 아직도 꼭 같지 않다.

어떤 출판업자들은 자사 간행물의 전자 버전을 만들고 있지만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직접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는 않는다. 사용자나 도서관은 여러 정보제공업체 중 하나를 조사해야 한다. 정기 구독자들은 자신이 구독하는 전자신문에 직접 접속해야 한다.

현재 출판되는 모든 전자신문에 접속하기 위해서 도서관

은 여러 출판사와 정보제공업체에 가입해야 한다. 출판사와 정보제공업체 사이에 동반자 관계가 더 많이 형성되고, 보다 많은 출판사가 직접 접속과 도서목록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접속을 제공함에 따라 이런 상황은 변화될 것이다. 결국 전자신문의 접속과 구입은 인쇄 신문과 같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관리를 단순화하고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전부가 아니면 대부분 하나의 예약 구독 판매 대행사를 통해 주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OPACS 혹은 웹사이트와의 통합

어떤 사용자가 호기심 나는 기사가 발행됐다는 것을 알고 그 신문에 직접 접속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정보제공업체 서비스를 통해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쉽다. 간행물 표제에서 키워드를 찾거나 알파벳 순서로 된 목록으로 검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이트를 찾았다고 해도 사용자가 이용하는 기관이 그 신문을 예약 구독한다는 보증은 없다.

도서관 간부가 도서관의 OPAC(Online public access catalog)나 웹사이트에 링크할 수 있게 하면, 사용자는 카탈로그에 있는 어떤 간행물이라도 현재 정기 구독을 하고 있으므로 이용할 수 있다는 보증을 받을 수 있다. OPAC에서 전자신문으로의 링크를 따라 가는 것은 전자 기사를 검색할 수 있는 보다 간단하고 직접적인 방법인 듯이 여겨진다.

그러나 웹주소(URLs)가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누가 링크를 유지시키고 카탈로그에 변경된 내용을 실을 것인가? 도서관이 출판업자들에게 직접 주문을 한다면, 이러한 링크는 유지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약 구독 판매 대행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용이성과 장점은 사라질 것이다.

정보제공업체 서비스는 모든 도서관 고객을 위해 출판사와의 링크를 유지할 수 있고, 특정 웹주소(URLs) 대신 OPAC 기록에 있는 CGI(공통 판문 인터페이스) 스크립트를 통해 로그인 접속을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다.

## 신문 이용가능성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간행물의 전자 버전을 발견했는데

그 도서관에서 해당 간행물을 정기 구독하지 않고 기사를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만약 그 도서관에서 인쇄물 버전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 불만을 품지 않고 도서관의 인쇄 수집물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일부 정보제공업체에서는 계획 중이거나 이미 실행하고 있는 주안점이다.

관련된 문제는 전달 형식이다. 사용자들이 리얼 페이지, HTML, PDF, 혹은 전문화된 전자우편 형식 판독 소프트웨어를 요구하는가? 만약 조직이 반대하고 지리적으로 널리 분포해 있다면 다양한 형식과 전달 메커니즘을 지원해야 한다.

## 관리 보고서

대부분의 시스템은 이용된 표제, 접속이 이루어진 기사, 다양한 다른 통계를 알려주는 사용횟수 보고서를 쉽게 만들 수 있다. 관리 보고서를 살펴보면 전자 간행물의 예산 경비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수집물 개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생활 문제에 관한 법적 규제와 조직의 전통을 알고 어떤 보고서를 수집하고 사용할지를 선택할 때 고객의 기밀은 절대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어떤 시스템은 등록되어 있는 경우 특정 기사 접속과 함께 AND/OR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와 사용자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이것은 사생활 침해로 여겨질 수 있다. 가령 한달과 같은 일정기간 동안의 신문 표제, 쟁점, 기사별로 접속한 기사 총수, 로그인 총수 등을 수집한 보고서는 침해했다는 느낌을 덜 주면서 유용한 통계를 제공한다. 4분기나 일년 단위의 보다 장기간 축적된 통계 역시 도움이 된다.

## 소유권 대 접속권

도서관이 인쇄물 신문 정기구독을 위해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면 그 정기 구독으로 하여 받은 간행물은 영원히 도서관 소유인가? 그렇다. 모든 간행물을 첫번째로 받았다면, 아무 것도 도둑맞지 않았고 못쓰게되지 않았다면, 흥수나 화재와 같은 자연 재해나 사고로 그것이 파괴되지 않았다면. 그렇다

면 전자신문의 경우는 어떠한가?

전자신문은 간행물로는 받아볼 수 없고 접속하여 이용해야 된다.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접속권을 가지게 될 것인가? 만약 도서관 간부가 전자신문 예약 구독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그들과 그들의 이용자가 계속해서 가입료를 지불했던 시간대로의 접속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출판업자가 CD-롬에 있는 그 발행물을 공급할 것인가? 미래의 CD-롬 독자들이 과거에 사용된 포맷을 읽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출판업자들이 사업을 그만 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조직이 전자신문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일을 맡기 위해 등장할 것인가? 그 조직이 도서관과 사용자에게 과거의 간행물을 제공할 것인가? 미래에는 전자신문에 접속하기 위해 비용을 얼마나 지불해야 될 것인가? 출판업자가 간행물이 처음 발행되었을 때 판매한 방식으로 판매하기를 거부할 경우, 간행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다음 기사를 개별 단위로 판매할 것인가? 누군가가 아카이브나 CD-롬에 있는 자료를 계속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번역하거나 새롭게 만들 것인가? 사용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과거 기사에 접속하기를 원하거나 필요로 할 것인가? 이것이 분야마다 다를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정보집적과 영속적인 접속이라는 극히 복잡한 문제의 핵심까지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결론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여러 도서관사서, 출판업자, 정보제공업체는 해결의 실마리가 될 의견일치를 보기 위해 애쓰고 있다.

## 사용 제한

전자신문 예약 구독 접속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만약 귀하의 도서관이 정의가 명확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들은 대개 접속권을 갖게 될 사람들이다. 그러나 귀하의 도서관이 대학생, 교수, 간부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대학 캠퍼스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출판업자들이 한 도시의 모든 시민에게 전자 접속권을 부여할 것인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집, 사무실, 기숙사에

서 로그인 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그들이 도서관의 워크스테이션에서 간행물기사에 접속해야만 할 것인가? 멀리 떨어져 있는 학습자들이 정기구독권에 포함되는가? 귀하의 도서관이 회사나 정부 기관을 지원한다면 얼마나 많은 원격 장소나 보조기관에 접속권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인가? 원격 장소가 다른 나라에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각 출판업자가 제공한 문서에 모든 권리와 허가 사항을 명백하게 생략하지 않고 다 쓰여져야 한다. 어떤 출판업자들은 가입자에게 허가서에 공식적으로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다른 출판업자들은 자신들의 출판물 사용에 따르는 조건이나 규정을 기술하는 문서를 제공한다.

정보제공업체가 이용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정보제공업체들은 모든 이용 가능한 라이선스, 조건, 규정을 담고있는 문서를 한데 모아 이용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만약 귀하가 소속된 단체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요구된다면, 이 업체들은 협상할 때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용제한을 읽고 이해하며, 출판업자들과 맺은 계약을 지지할 준비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 결론

전자신문 접속은 정보 전달 세계의 새로운 추세라 할 수 있다. 이런 추세가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다. 사람들은 자신의 데스크탑에서 기사를 찾아 검색할 수 있는 순간을 만족스럽게 즐긴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정보 제공을 둘러싼 많은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도서관 사서, 출판업자, 공급자가 합심해 노력하여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 샤론 클라인 맥케이이는 도서관과 정보 산업계에 25년여 동안 있으면서, 도서관과 공공 기관, 구독 예약 판매 대행사에서 일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도서관학 석사 학위는 남부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취득한 것이다. 